

우리 과학기술계가 거듭나야 한다

글 | 이덕환 _ 본지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duckhwan@sogang.ac.kr

대한민국 최고 과학자 황우석의 추락은 요란스럽고 충격적이었고 추했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묵묵하게 땀 흘려 일해왔던 우리 과학기술계의 뿌리를 뒤흔들어 버린 정말 당혹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물론 이번 일이 우리 과학기술계의 직접적인 잘못으로 일어난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과학기술계가 황우석 사태의 최대 피해 자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학기술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뿌리부터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그것만이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 과학기술인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역사적, 사회적 책임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과학기술계는 다시 일어서야만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의 종합적이고 완전한 원인을 밝혀내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 과학기술계의 부끄러운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도 있다. 만약 그런 일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분명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책임져야 할 우리 과학기술계가 도리어 국가와 민족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것을 함께 부끄러워해야만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 과학기술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드러내놓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야말로 국제적인 수준에 맞도록 모든 것을 개선해야만 한다.

우선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 지난 6년 동안 우리 과학기술계를 휘젓고 다닐 수 있었던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 그동안 우리 과학기술계가 문제를 지적하려고 노력했지만 선정적인 언론이 주목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핑계일 뿐이다. 우리 과학기술계가 작은 성과를 지나치게 부풀려서 사회의 관심을 끌

어보려고 노력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 언론의 과학 보도가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선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의 과장 보도를 부추긴 것은 과학기술계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33조 원'의 시장 가치가 있다고 밝힌 것도 우리 자신이었다.

우리 과학기술계가 우리 사회를 명들게 만들고 있는 이공계 기피를 해결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공계 기피를 이용해서 과학기술계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려고 노력했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스타 과학자'가 등장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던 것도 바로 우리 과학기술계였다.

국민의 진정한 동의와 지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손쉽게 정부에 의존하려고 했던 자세도 반성해야 한다. 지금도 과학기술계는 생명윤리와 환경과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관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왜 그런 문제들을 우려하고 있는지를 우리 과학기술계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로지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 줄 경제적 가치를 앞세워 현대의 과학기술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을 뿐이다. 과학기술계에게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런 지원은 국민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확보해야만 한다.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 과학기술계의 발전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극도로 경계해야만 한다. 정치와 뒤섞이고 나면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의 정체성은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새턴의 갑작스러운 결별 선언으로 문제가 불거져 온 나라를 뒤흔드는 수준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우리 과학기술계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이유도 분명하게 알아내야 한다. 우리가 세계적인 학술지의 권위와 명성에 현혹되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 물론 순진한 과학기술계가 이런 정도의 엄청난 부정과 거짓을 상상할 수는 없었다. 우리 과학기술계가 언제나 깨끗했던 것은 아니었다. 논문 표절이나 연구비 횡령 등의 범죄적 행위가 끊임 없이 이어져 왔다. 지금까지 우리 과학기술계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지극히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심지어 부끄럽다는 이유로 그런 일을 없었던 것처럼 덮어버린 경우도 없지 않았다.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더라면 이번의 경우에도 '과학적 검증'을 앞세워 우리 사회의 정화 메커니즘을 가로막지는 않았을 것이다. 연구 결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과학자의 부정에 대한 사회적 검증은 분명하게 구별해야만 했다.

우리 젊은 과학자들의 도움으로 일을 해결하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러나 그런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익명으로 공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다. 우리 과학기술계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원활하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연구실의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우리 대학의 풍토는 반드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만 한다.

연구 성과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늘어나고, 벤치의 열풍이 거세게 불어 닥치면서 우리 대학의 연구실 환경은 극도로 악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제 어디에서도 제자를 아끼는 스승과 스승을 존경하는 제자의 아름다운 관계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로지 연구 성과를 얻고 싶어 하는 '지도교수'와 박봉에 시달리면서 불합리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연구조원'이 있을 뿐이다.

단순히 대학원생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연구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대학의 평가 제도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그런 환경에서 대학원생은 교수의 연구 성과를

생산해내는 '노동자'에 불과하다. 그런 입장에 놓인 대학원생이 진정으로 교수를 존경할 수도 없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대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교육'이 완전히 실종되어 버리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다. 교육이 실종된 대학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지금처럼 연구 성과만 강조하려면 오히려 이공계 대학원을 모두 연구소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연구책임자와 연구원의 고용 관계는 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출연연구소의 대학원 과정도 심각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여러 가지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이공계로 진출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을 낮은 보수로 활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대우는 대학원 학생에서부터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연구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부작용은 수없이 많다. 연구 논문의 저자 부풀리기와 논문 조작내기도 그런 환경에서 시작된 우리 과학기술계의 고질병이다. 연구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논란도 문제다. 과학 연구의 근본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강요되는 '공동 대형 연구'가 문제의 핵심이다. 필요하지도 않고,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은 공동 대형 연구는 과학기술계를 불필요하게 분열시키고, 과열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런 분위기에서는 모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 과제 선정에 극도로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사태의 원인을 차근차근 하나씩 찾아내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과학기술계가 뼈를 깎는 아픔을 견뎌내고 뿌리부터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언론과 정부의 탓만 해서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CT**